

# 우주적 생명력의 역동적인 순환구조 상징

##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들린 용어 바로잡기

卍→卐



卍字는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에 자세히 나오는데 중국 당(唐)나라의 혜림(慧琳)이 807년에 편찬한 불교용어사전이다. 그 경전에 의하면 卍字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으며 때때로 나의 의견을 덧붙여 기로 한다.

### 1. 卍字之形(今勘梵本卍字乃是德者之相非卍字也...)

卍字는 덕자(德者)의 상(相)이지 원래 글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범자(梵字)에 의하면 그 모양에는 네 가지 상(相)이 있다고 했는데 그 상들의 본질을 살펴보면 모두 한 가지 속성으로 귀결하여 감을 알 수 있는데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나 매우 흥미롭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런데 모든 범어 용어를 음사(音寫)한 것으로 범어를 모르면 알 수 없고 이미 범어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해하기 복잡하나 이 글에서는 간단히 밝히려 한다.(그림 ①: 다음에 언급한 나의 설명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기 바란다.)

### 2. ...依梵文有四種相也(다음에 한자, 한국어, 범어 등의 용어, 그리고 필자가 그 뜻을 해석하여 적어둔다.)

卍에는 네 가지 상(相)이 있다.

① 살리말차(室利鞞): Sravasta, 卍字를 가리킨다.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卍의 조형 가운데 둥근 원이 있는데 그것은 앞 회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보주에서 영기문이 사방으로 발산하되 오른쪽으로 도는 조형이다.(도 2)

② 난제가물다(難提迦物多): Nandikāvarta, 즉 우선(右旋)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도는 '탈'이라 말하고 있지만 이 역시 탈이 아니다. 역시 역동적인 대생명력인 '물의 대순환(大循環)'을 지극히 가장 간단한 조형으로 나타낸 것으로 바로 제1영기씩이다. 앞 회에서 그것이 '물'임을 밝혔다.

③ 색박실저가(塞瞞悉底迦): Swastika,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卍의 조형으로 앞 회에서 그 역동적인 대생명력인 물의 대 순환이라는 점을 나의 조형언어 읽기로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당(唐)시대의 불교용어사전의 도해는 부처 같아서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①과 혼동하기 쉽다.

④ 본나가타(本囊伽): Purnaghata에는 세 상(相)이 있음: 卍, 卐, 卐. 鉢特忙: 발특망, Padma(연꽃) 卍, 斫訖羅: 적홀라, Cakra(法輪) 卍, 拔折羅: 절발라, Vajura(금강저)

본나가타(Purnaghata)는 이 연재 시작했을 때 맨 먼저 다룬 '만병(滿瓶)'을 가리키는데 '대생명력(즉, 물)이 가득 찬 항아리'를 뜻한다. 그 항아리에서 영기꽃이 나오므로 흔히 꽃병이라 부르지만 꽃병이 아니다. 즉 항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득 찬 '물'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만병에는 세 가지 상(相)이 있다고 한다.

ㄱ. 원래 만병은 연꽃에서 탄생하는데(이 문제는 도자기 성립 과정에서 가장 큰 주제이므로 다음 기회에 다룰 것이다), 경전에서도 맨 밑에 연꽃 모양에서 만병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만병에는 padma 즉 '연꽃의 상(相)'이 있다는 기막힌 해석은 해놓았으나 충분한 해설이 없으므로, 사전이 나온 이래 1000년 이상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근대에 이르러 꽃병(花瓶)이란 그릇된 용어를 쓰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만병(滿瓶)으로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ㄴ. Cakra는 법륜(法輪) 혹은 보륜(寶輪)이라 부르지만 그 용어도 인도에서 처음부터 오류를 범하여 썼던 용어이다. 언뜻 보기에 수레바퀴같이 보이지만 수레바퀴가 아니고 큰 원 안의 중앙에 둥근 원이 있고 그 중앙의 둥근 원은 보주로, 보주에서 빛(영기)이 햇살같이 뻗어나가는 조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 역시 중

양의 보주(寶珠)는 영기가 충만한 둥근 모양이지 보석이 아니다. 이 보주라는 용어 역시 다음 회에서 다루려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보주에서 발산하는 영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ㄷ. 절발라는 바로 금강저(金剛杵)를 가리키는데 이 금강저 역시 무기나 막연한 깨달음이 아니고, 상징이 매우 큰 만물생성의 근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역시 다음 회에서 충분히 다루려 한다. 금강저라는 용어가 왜 옳지 않은지 자세히 밝힐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경음의>에서 다른 여러 상(相)들은 결국 모두 물, 즉 우주의 순환하는 대생명력 즉 만물생성의 근원으로 귀결할 수 있으므로, 모두 경배의 대상으로 될 수 있어서, 그 여러 상(相)들이 불감이나 건축에서 여러나 보살의 자리에, 이슬람 미술에서는 알라신(神)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앞 회에서 卍이라는 조형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면 이상과 같다. 근대에 서양에서 퍼낸 불교 사전에서 범어와 영어 해석에 의해 겨우 용어의 단서들을 알고 다시 내가 그 약간의 오류들을 바로 잡아 가면서 이 연재를 3회에 걸쳐 쓰는데 한 달이 걸렸다. 卍의 조형은 제1영기씩-보주-용(龍)-금강저 등 큰 주제들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런데 <일체경음의>에는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원래 卍이 우선(右旋)임을 알 수 있었고 관련된 상(相)들로 해서 卍의 조형적 상징을 비로소 밝힐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卍이란 모양은 우주의 가득 찬 대생명력[물]의 역동적 대순환을 가리키는 만물생성의 근원을 조형적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그 자리에 도가사상이나 불교사상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 즉 여러나 보살, 태극(道) 등이 대신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환 한국미술사연구원장



그림 ① 중국 불교용어 사전의 도해(불필요한 것은 지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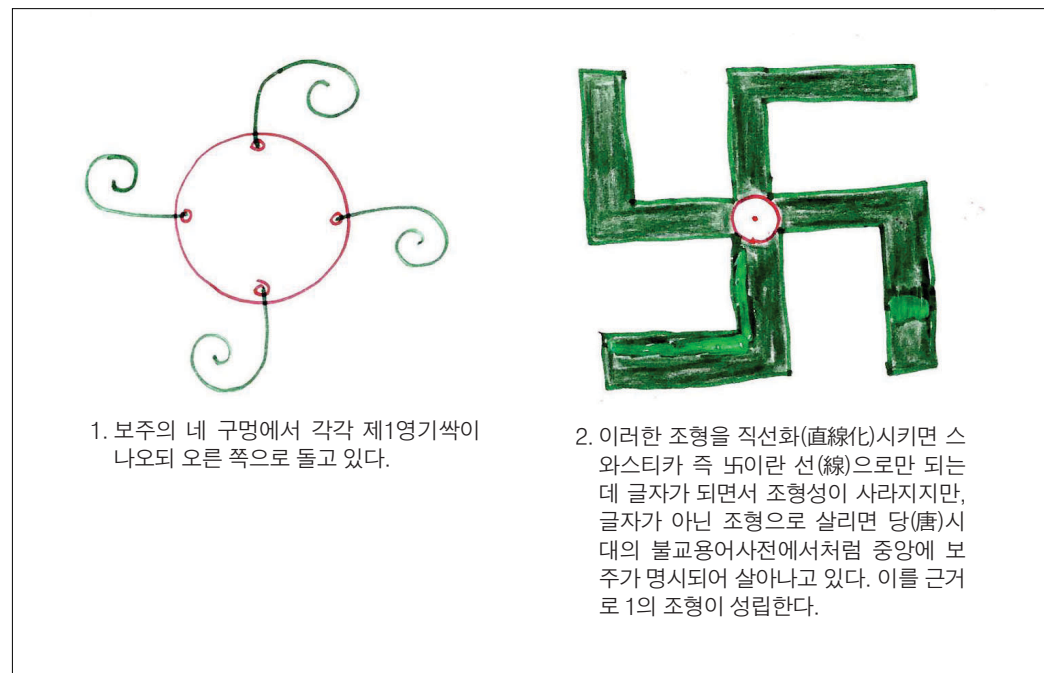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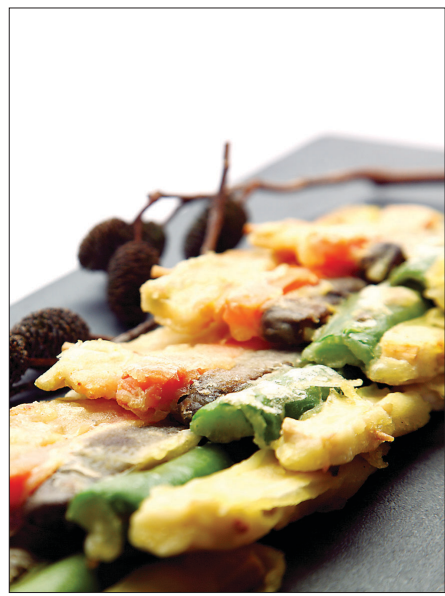


그림 ② 위의 도해 가운데 卍의 도해만 필자가 새로 해석한 것. 왜 그래야만 하는지 차차 알게 될 것이다.

## 藥 이 되는 사찰음식

## 말린 채소로 먹는 비타민 D 호박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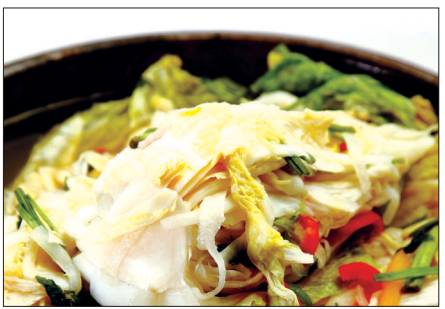
**호박고지 산적**  
△재료(4인 기준)  
○ 호박고지 300g, 간장 1큰술, 들기름 1큰술, 소금 약간  
○ 당근 1/2개, 풋고추 10개, 표고버섯 10장, 새송이 2개  
○ 우리밀가루 1/2컵, 메밀가루 1/2컵, 물 250cc, 간장 1작은술, 소금 1/2작은술

△만드는 법  
① 호박고지는 찬물에 살짝 씻은 후 표고버섯과 함께 부드럽게 불려 물기를 짰 후 밀가루한다.  
② 당근은 7cm 정도의 길이로 썰어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준비한다.  
③ 풋고추, 새송이, 표고버섯도 7cm 정

도의 길이로 썬다.  
④ 고지에 호박고지와 부재료를 색 맞추어 꽃아 부침옷을 입혀 노릇노릇하게 구워낸다.

**파프리카 백김치**  
△재료(4인 기준)  
○ 배추 1포기, 소금 2/3컵  
○ 배 1/2개, 빨간파프리카 1개, 노란파프리카 1개, 무 200g, 미나리 30g, 생강 20g, 국간장 3큰술, 소금 1큰술, 매실청 2큰술  
○ 물 3컵, 소금 1큰술

△만드는 법  
① 배추는 2.5kg 정도의 것을 골라 누린



일 등 겉잎을 다듬은 다음 분량의 소금물에 10시간 정도 절인 후 헹구 물기를 뺀다.  
② 배추소에 들어갈 재료는 모두 0.3cm 정도의 크기로 채썰어 간장과 소금, 매실청을 넣어 골고루 버무린 후 배추 사이사이에 소를 채운다.  
③ 물 3컵을 끓인 후 소금을 넣어 간을 맞

춘 후 식힌 후, 배추에 부은 후 꼭꼭 눌러 담는다.  
**자연재료 맛 살린 '파프리카 백김치'**  
곡식이나 채소를 갈무리하기 좋은 계절인 만큼 무나 호박 등 갖가지 재료들을 많이 말리고, 그 말린 재료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해 먹는데 그중에서도 호박고지는 찜이나 전, 떡 등 많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다.  
호박을 햇볕에 말림으로써 호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영양성 외에도 우리 몸의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함량이 높아지고 그 맛이 농축되어 더욱 깊은 맛을 내게 된다. 산적으로 만들어 먹을 경우는 밀간을 하여 고지에 꽃아야 깊은 맛이 나게 되며 여기에 밀가루만 사용하기 보다는 메밀이나 콩가루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요즘 김치의 영양성은 우수하나 나트륨을 지나치게 섭취한다는 이유로 김치를 많이 먹지 않거나 심하게 담아 먹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파프리카 백김치는 자연재료의 단맛과 함께 저염김치로 손색이 없다.  
백김치는 일반 배추김치보다는 조금 작고 결이 있는 파랑과 속은 노란 것을 골라 10%의 소금물에 12시간 정도 절인 후 두세번 정도 헹구 물기를 뺀 다음 소를 채워 넣고 반나절 정도 지나 배추와 소가 어우러져 약간 숨이 죽을 때쯤 국물을 부어 주어야 간이 잘 들며 팔팔 살아나거나 풋내가 나지 않는다. 이는 배추를 버무린 후 바로 물을 붓게 되면 배추의 간이 베이기 전에 염도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온에서 2~3일 정도 살짝 익힌 후 김치냉장고에 넣어 발효가 잘 되어 백김치 특유의 톡 쏘는 알싸하면서도 시원한 제 맛을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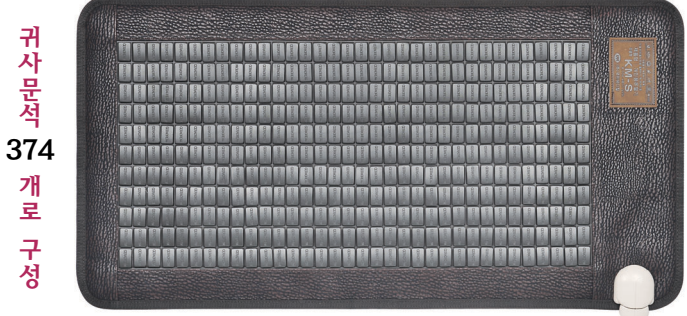


김은연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쭈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2호허가번호 제 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인 의료기기입니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숲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374 개로 구성

A형 50cm x 100cm | B형 65cm x 165cm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침시에는 온열 매트로!!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숲가마 **찜질방(전자파 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수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풀어놓는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야 상담 합니다